억압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이들에게

 페다고지를 읽으며 해방감보다 너무나 억울해하는 피억압자와 괴롭히는 억압자의 충돌을 동시에 느끼며,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되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닫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이처럼 이나 힘들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 어쩌면 프레이리가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런 극단적인 현실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강한 일침을 가하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를 위해 진정으로 아파하고, 공감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한 적이 있는가? 자유와 해방을 싸우는 사람, 프레이리를 가슴 따뜻한 인간, 프레이리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1. 모두가 억압자인 시대에 살고 있다.

강한 권력을 가진 억압자와 그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최고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피억압자가 존재한다. 이 모호한 정의에 사실은 답답함을 느꼈다. 나는 누군가에게는 피억압자, 다른 이에게는 억압자가 되기도 한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로 들으려 하기보다,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더 강하다. 그리고 그 것에 순응하는 이들을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피억압자의 태도를 가진 부분에서는 억압자의 위치를 그저 우러러 보며, 넘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흔히 ‘포기’라는 말을 사용하여 나를 합리화한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사회와 문화속에 사는 우리에게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혼용되어 사용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이다. 피억압자인 나에게는 용기가, 억압자의 나에겐 겸손한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벗어나가야 또 다른 피억압자와 억압자의 관계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이 시대에 나는 억압자로 살고 있는가? 피억압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모습을 벗어나 다른 중간자의 역할을 하며, 그들을 돌보며, 이들이 그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삶을 살 고 있는가? 개발협력도 이 맥락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를 과감히 벗어야 한다. 우리가 벗어 던지지 않으려 해도 이 관계는 개발협력에서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을 해야한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겸손한 태도로 우리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쉽게 억압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 크나큰 용기와 헌신을 요한다. 그들에게 용기와 대화를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아무 표현도 할 수 없는 벙어리로 만들것인가는 우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인간은 성찰과 행동, 프락시스의 존재이다. 입만 나불거리는 평화의 노래가 아닌, 평화를 추구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존재들이다. 실천적 성찰과 성찰적 실천을 통한 끊임 없는 의식의 성장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성찰 하며 살고 있는가? 작은 행동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말하고 행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혁명지도자들과 억눌린자들의 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억압자에서 피억압자의 위치가 된 이들이 다시 피억압자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억압자들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대화적 인간, 혁명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프레이리에게 아쉬운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단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야할 과제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해주지 못한 것이다. 대화식 교육을 위한 선생님, 참된 휴머니즘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 준비되어 있는가?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반문해본다. 나는 혁명이라고 하면 무리들이 줄지어서, 자신들의 소리를 내고, 싸워 쟁취하는 모습이 연상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가히 폭력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또다른 피억압자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대화식 교육, 프락시스의 인간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작은 노력부터 해야한 다는 것이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먼저 미소 지어 인사했는가? 나의 그 미소가 혁명을 불러올 수 있다.

**‘PEDAGOGY OF THE OPPRESSED’**

**Reflection Paper 2019 2 27 이신애**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는 영어 버전으로 된 제목이 ‘Pedagogy of the Oppessed 피억압자의 교육학’ 이다. 피억압자, 억압자, 대화, 프락시스 등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열되기에, 몇 가지 기억에 많이 남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리플렉션을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1) 대화

우리는 흔히 대화를 쉽게 생각하고, 빈번히 한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화는 대화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대화하고자 하는 대상과 얼마나 진심으로, 온 마음과 이해를 다하여 서로 알고자 하는가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부재한 대화는 시끄러운 말소리, 잡담, 혼잣말, 헛소리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진정한 대화를 위해선 인격체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대화하는 교사와 학생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특히 교사가 중요하다. 단순히 학생은 자신보다 무지하며 더 배워야 하는 존재, 열등한 존재로 상정하고 교육을 진행할 경우 그 교육은 죽은(비인격적) 교육이다. 비 인격적 교육이다. 그 교육 안에서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처럼 프레이리는 교육으로서의 대화, 대화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며 학생과 교사의 공동의 깨달음과 이해, 비판의식을 강조한다. 기존의 은행저금식 교육은 그저 지식을 나열하며 교사는 지식 전달자, 학생은 수동적인 지식 수용자로 상정되어 아무 의미 없는 교육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하지만 듀이의 저서 ‘경험과 교육’ 에서도 밝히었듯, 교육은 절대로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같은 공간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도 학습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학생 각자 각자에게 일련의 교육적 깨달음이 된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단일한 담론도, 교육과정도 없다.

프레이리가 비판적 사고와 문제 제기식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그 방법이야 말로 인격과 인격의 대화, 즉 ‘교육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2) 억압자와 피억압자

더불어 프레이리의 저서 페다고지는 영어 제목으로 ‘PEDAGOGY OF THE OPPRESSED’ 로서, 피억압자의 교육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목만 봐서는, 식민국 혹은 노예와 관련한 교육학을 다룬 책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프레이리는 페다고지 책 전체에 걸쳐 교육자와 학생이 진정한 인격적 대화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마음과 철학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식민지배 국가 혹은 노예를 대상으로 쓴 교육학 저서가 아니기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현대 민주주의를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억눌린 자아에 오히려 필요한 교육학인 것이다. 오히려 현대 민주주의라는 허울에 가리워져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적 인식, 비인격적, 비교육적인 교육으로 인해 관념과 독립심이 억눌린 학생들의 자아와 경직된 학교교육에 일침을 날려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책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단어는 ‘억압자’와 ‘피억압자’인데, 이렇게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행위자가 명료하고 책임을 지는 이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피억압자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억압받은 경험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가 종속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해야만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자들은 숙명론을 깊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과 현실에 대해 탈피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의지와 마음이 거의 없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립심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피억압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맹목적인 이타심과 인류애로 똘똘 뭉친 지배계층, 혹은 지식인 층이 피억압자에게 일련의 훈계와 무조건적인 계몽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까? 그것에 대하여 프레이리는 피억압자와 억압자의 진정한 대화를 강조하며, 함께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탐색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도 없고, 그 개혁의 과정도 길게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시간이 꽤나 걸리는 과정이 바로 피억압자의 삶의 변화이다.

(3) 협동, 공존

피억압자의 교육학이라는 제목과 달리 사랑, 협동, 대화를 강조하는 결론은 놀랍기까지 했다. 종교의 경전을 읽는 듯한 결론 앞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엔 없었다. 하지만 현실인식이 높은 프레이리의 결론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감상주의적 해답이 아니었다. 실로 정확한 분석이었다.

대부분의 교육 개혁 정책과 계획이 피억압자들의 현실적 삶의 개선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그 입안자가 실제 맥락과 사람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 계획자의 개인적 현실관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하고 실제적인 지적아닌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실패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다. 그들의 현실과 그로인한 현실인식은 오랫동안 가난과 결핍에 시달린 민중들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민중들을 이해하는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부재한 정책 계획은 무조건 실패로 돌아가며, 설사 성공하였다해도 문화침략에 그치고 말 것이다. 민중들의 독립심과 자주성을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혁은 대부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생각보다 교육개혁과 민중들의 삶의 개선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당연한 말이다. 우리 자신의 작은 습관도 바꾸기 힘든데, 가난에 오랫동안 시달려 수많은 의심, 자기 연민, 두려움을 지닌 피억압자들의 인생을 멋드러진 정책 계획 하나로 개선시키겠다는 포부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교육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하기로 마음먹고, 피억압자들의 인생을 어떻게든 개선시켜보겠다고 꿈꾸고 공부하는 나에게 일침을 날려주고, 나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꺾어주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역사성을 지닌 인간이라서, 우리가 지금껏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 반추해보고 질문할 수 있는 인간이라서. 피억압자와 억압자, 혁명 지도부가 같은 인간이라서, 다행이다. 대화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에, 희망을 버릴 수 없다.

희망이 없이는 대화도 불가능하고, 대화가 없이는 피억압자들의 삶을 전혀 도울 수 없으니,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협동할 수 있음이 참 다행이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현지 연구를 진행하게 될 상황도 이제 있겠고, 현지인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텐데, 나의 포부와 나만의 개인 인생관에 치우쳐 그들의 삶을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여 나 홀로 구원하겠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부디 기도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겸손, 대화, 오랜 시간의 인내를 통한 교육을 실행하고 싶어졌다. 그들에게 가난은 실제적 삶이고 물리적인 결핍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절대 만만히 보지 말자. 이 분야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의 삶과 교육적 개선에 대하여 이렇게 첨예하게 다룬 글을 읽게 되어 축복이다. 감사한 책이다. 나를 돌아보고, 개발협력에 대한 나의 독선적인 가치관에 대해 돌아보게 된 귀한 시간이 되었다.